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9 7.8.9 통권 제70호 [www.ksm.or.kr](http://www.ksm.or.kr)

**화보** 한국의 김치! 중형무진 러시아대륙을 건너다  
러시아 블고그라드와 사할린에서 열린 고려인 김치축제



표지사진

“표정”

10개월만에 만난 남과 북, 각기 다른 표정에서 오늘을 보듯하다 (개성 개풍양묘장, 2009. 9)



# 언제나 파란 하늘처럼

고개를 들어 창공을 보니 파란 하늘이 끝이 없습니다. 참 좋은 날씨입니다. 남북관계도 파란 하늘처럼 늘 맑고 청정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난 8월 26일 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오랜 만에 가 본 평양은 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깨끗하게 잘 단장이 되어 손톱만한 휴지 조각도 함부로 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곱게 양산을 받쳐 든 여성들의 활달한 발걸음이 신선해 보였고, 대동강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뱃놀이를 즐기는 등 평양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때마침 남북관계도 그동안의 냉각에서 서서히 풀리는 듯 하여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이번 평양방문에서 또 한 번 확인한 것은 민간의 교류협력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늘 파랑지 않듯 남북 관계도 늘 맑고 청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먹구름과 천둥·번개도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희일비하며 교류 협력이 끊기거나 중단 된다면 어느 세월 에 신뢰를 쌓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먹구름이 끼고 천둥·번개가 친다 해도 일 년 중에 맑고 청정한 하늘이 더 많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중단 없는 남북 간의 민간의 교류와 협력은 바로 이 같이 맑고 청정한 하늘같은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자기의 역할을 참으로 소중하게 잘 지켜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이처럼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하는 후원회원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후원회원 여러분들과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실무일꾼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정려합장)

정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범어사 주지



## 목차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 인도적지원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 평화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 남북통합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 여는 글** 03 언제나 파란 하늘처럼
- 화보** 04 "한국의 김치, 종횡무진 러시아 대륙을 건너다"  
러시아 블고그라드와 사할린에서 열린 고려인 김치축제
- 칼럼** 06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민간지원, 전면 허용되어야 한다
- 연재** 08 전 주민이 총동원되는 북한의 가을걷이
- 보건의료 지원** 10 발 묶인 지원물자, 이제는 풀어야 합니다
- 인터스개** 1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그 자체에 힘이 있는 말!
- 기고** 13 태양을 열린 열정, 34명의 블고그라드 아리랑
- 14 불타는 더위, 더 뜨거운 열정, 7박 8일간의 붉은 추억
- 16 "마음으로 하는 말" 세상을 등글게 만들수 있는 힘을 확인하다
- 사업일지** 18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
- 후원자명단** 20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 NGO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9년 7+8+9월호 통권 제70호 | 발행인 | 영 담,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 편집인 | 강영식 | 발행일 | 2009년 9월 30일  
| 주소 |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36-1 덕성빌딩 B1 | 전화 | 02)734-7070 | 팩스 | 02)734-8770  
ksmseoul@ksm.or.kr www.ksm.or.kr | 디자인 및 인쇄 | 인디디자인

【교문】 강문규, 김성훈, 박경조, 서영훈 【상임공동대표】 영 담,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공동대표】 고희선, 김영수, 김현수, 박남수, 박원철, 박준영, 윤장현, 이수구, 이용선, 정 여, 정의화, 천정배, 최대석 【감사】 김영환, 전 성 【사무총장】 강영식

# 강국의 기원! 정향무진 러시아 대륙을 건너다

## 러시아 볼고그라드와 사할린에서 열린 고려인 김치축제

2001년부터 시작된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 축제가 올해로 8회째를 맞아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속에 나날이 발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작년부터 한국의 대표음식인 '김치'를 테마로 한 '고려인 김치축제'를 러시아 현지의 큰 관심과 고려인의 참여속에 성황리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8월 15일, '볼고그라드 고려인 김치축제'에서는 다시 한번 그 맛과 매력으로 러시아 현지인까지 사로잡기 충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김치축제'의 인기는 러시아 대륙을 건너 사할린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6일까지 4박 5일간 볼고그라드에 이어 '고려인 김치축제'를 개최한 것입니다. 러시아 대륙을 건너 열린 '고려인 김치축제', 그 모습을 이번호에 담았습니다.



- ① 볼고그라드 고려인 김치축제가 열린 '데까가리나' 회관
- ② 볼고그라드 고려인 김치축제 중 부대행사 '종이접기'에 참여하는 고려인 아이들
- ③ 볼고그라드 고려인 김치축제 문화행사모습
- ④ 볼고그라드 고려인 김치축제에서 담근 김치를 나눠주는 고려인
- ⑤ 라스토프 고려인 무용단 '금강산'의 축하공연
- ⑥ 사할린 에트노스예술학교 무용단의 향아리춤 공연
- ⑦ 사할린 김치축제 행사장에 전시중인 한국의 각종김치
- ⑧ 한국 김치에 대해 설명중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해외사업팀 이봉철 부장
- ⑨ 사할린 김치축제 중 담근 김치를 시식하는 한인들

# 김치

Volgograd & Sakhalin

#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민간지원, 전면 허용되어야 한다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

“5세 이하의 북한 어린이 37%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거나 “북한여성의 3분의 1이 영양실조 및 빈혈에 노출”되어 있다는 언급이 눈에 들어온다. 10 수년 전에 북한 주민이 겪었던 고난의 행군 이야기가 아니다. 이번 달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간행한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세계식량계획(WFP)의 기고문 내용이다.

사실 북한 주민들이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굶주림이나 열악한 보건 및 의료 환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를 두고 아마도 어떤 나라의 사람들은 못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당연히 경험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무감각하게 받아들일는지 모른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혐오감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그 주민이 당하는 기아와 질병을 북한 지도자가 그간에 보여 온 행동의 인과응보쯤으로 간주할는지 모른다. 너무 자주 접하는 소식이라 이제는 충격에 둔감해져 버린 사람들도 있으리라.

그래서 인지 우리 정부당국은 북한주민의 시급한 식량 및 보건문제에 시큰둥하다. 정부는 정치, 경제적 상황과 인도적 지원사업을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작년 말 이후 북한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 4월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에는 국내민간단체의 모니터링 인력과 전문기술 인력의 북한방문을 제한하고 인도적 대북지원물자의 반출승인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마련된 많은 물품들이 인천항에 그대로 쌓여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원물품이 전달되지 않아 민간단체들이 북한에서 진행하고 있던 각급 병원, 농장, 탁아소, 학교 등 지원사업이 답답한 상태에 빠져 있고 많은 어린이와 환자들의 급식과 치료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봄철에 지원되어야 할 영농자재는 때 맞춰 전달되지 않아 수확기의 곡식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병원에 지원될 예정이던 의료용품이 전달되지 않아 하루가 급한 환자들은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이 연장되고 있다.

북한 주민의 현실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 정부는 특별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영양실조와 이로 인한 질병발생은 세대간에 반복되는 현상이다.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및 미네랄의 결핍으로 인해 북한의 어린이들은 신체성장 뿐만 아니라 정서 및 두뇌발달에 있어서도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북한 아동의 성장지체는 결국 우리민족의 역량을 확대하고 키우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대다수 북한 주민의 빈약한 영양상태와 질병은 통일된 한국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행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북한 주민의 현실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 정부는 특별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영양실조와 이로 인한 질병발생은 세대간에 반복되는 현상이다.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및 미네랄의 결핍으로 인해 북한의 어린이들은 신체성장 뿐만 아니라 정서 및 두뇌발달에 있어서도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북한 아동의 성장지체는 결국 우리민족의 역량을 확대하고 키우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결단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식량 및 보건 의료의 지원이 숭고한 인도주의의 실천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면 우리에게 그 외에도 현실의 안보와 경제 문제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사안으로써 그리고 통일과정에서의 민족적 기반사업으로써의 의미가 부가되어 있다.

이렇듯 2중 3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가 과거에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쌀, 비료 등 정부차원의 대북인도지원을 재개하고 민간단체에 의한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허용해야 한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남북협력기금법이 명시한 기금사용의 용도로서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은 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되어야만 달성될 수 있다.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보건의료의 결핍에 노출되어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 오던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정책변화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지원을 끊게 되면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로서 고도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할 남북간의 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둘째, 정부는 인간의 대북인도지원 물품에 대한 선별적 반출승인을 철회하고 전면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인도주의의 실천은 상대적 우월감 속에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모습이 아니다. 인도주의는 인종과 피부색, 체제와 이념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른 인종, 피부색, 체제와 이념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민간단체들이 지원하는 실천 속에서 살아난다. 더욱이 같은 민족이며

평화통일의 타방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돕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누차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굶고 있는 북한 주민의 먹을 거리와 질병의 고통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의 치료에 필요한 약품 및 기자재의 반출을 제한하거나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행위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야만적 이기주의의 표현이다.

셋째,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 제한조치는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화에 역행하는 선택이다. 북한은 최근 억류되었던 개성공단 근로자의 송환과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 조문단 파견 및 대통령면담, 구금되었던 미국 여기자의 석방 등 적극적인 유화조치를 통해 국제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미국은 6자회담의 틀이라는 수식어를 달기는 했지만 북한과의 양자회담에 응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밀월관계”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정색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민간단체의 인도지원을 계속해서 억제한다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이끌어 내고 평화적인 남북관계의 회복이나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자기를 지켜주지 않거나 과오를 교정할 힘을 안 가진 자에게 충성을 다 하지 않는다”고 했다. 남북의 정책결정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이 과연 우리 민족의 미래와 주민 개개인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지 깊이 짚어보고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주저 없이 이를 수정해나감으로서 뒤 늦게라도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일러스트 봉사 김경진

## 전 주민이 총동원되는 북한의 가을걷이

정민숙 새터민, 가명

아침저녁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여름내 덥힌 후덥지근한 마음까지 날려 보내려는 듯 가을을 재촉한다. 이맘때면 내가 자란 고향 청진은 풋 강냉이 맛 보기에 마음이 조금해지는 계절이다. 누런 금빛색의 아끼팔뚝만한 달고 구수한 강냉이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 년에 한두 번 밖에 맛볼 수 없는 별미의

귀한 먹거리다. 조선 땅 어디를 가나 시골정서가 풍기고 풍만한 가을이 묻어나지만 북한의 가을풍경을 그려보면 아름답고 풍요로워 만사 시름이 다 놓이는 더욱 특별한 계절인 듯 생각된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쳐다보니 눈앞이 아찔하게 넓은 강냉이 포전에서 보이지도 않는 밭머리 살피며 한숨짓던 잊지 못할 농촌지원의 날들이 어제 일처럼 떠오른다.

북한은 봄철 모내기부터 시작하여 세벌 김매기까지 전국의 공장·기업소 노동자들은 물론 학생들과 군인을 비롯해 가두여성들까지 총동원하여 한해 농사를 짓는다. 그 만큼 농촌의 역량이 약하고 현대화되지 않은데다 쓸 만한 건장한 남정네들은 재간 것 도시로 다 빠져나가 힘없는 아낙들과 어린 처녀들이 농촌진지를 지킨다. 그래서 해마다 봄철 모내기 전투에 이어 가을철, 전 주민들에게 또 한 번의 총동원령이 내려진다. 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탈곡과 건조, 저장준비까지 기본적으로 끝내야 나머지 바쁜 일들을 해제 길 수 있기 때문에 열악한 북한농촌은 가을이 들어서기 바쁜 9월에 전국의 학생들과 직장인, 군인들까지 모두 추수에 동원된다.


황해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대다수 경지면적에는 벼보다 강냉이를 많이 심기 때문에 강냉이수확이 일찍 시작된다. 농촌경영위원회는 각 기관·기업소, 대학들에 일찍이 지원농장을 배정해주고 시·군행정위원회 로동과는 해당단위에 일정규모의 지원노력을 요청한다. 날짜가 확정되면 기업소에서는 해당 인원을 선발해 2~3주간 먹을 수 있는 식량과 자체확보한 부식물을 가지고 맑은 단위농장에 지원노력을 보

내다. 새벽 6시에 깨어 포전으로 나가면 이슬비에 바지가랑이가 젖은 줄도 모르고 열심히 강냉이가을을 시작한다. 일인당 도급제를 주기 때문에 맑은 밭고랑의 강냉이 대를 정신없이 베어 가다보면 어느 순간엔가 머리가 어지럽고 하늘이 빙빙 돌아 혼자 주저앉아 쉬기도 한다. 따가운 해 빛이 내려 쪼이는 가을 낮, 줄줄이 흐르는 땀을 손으로 훔치며 한참 부지런히 강냉이 대를 베나가야 점심 먹을 시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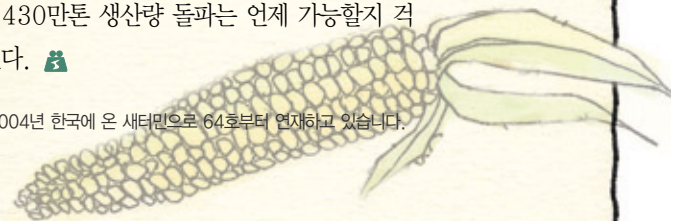
넠다. 농장에 도착하면 농장 관리위원회가 작업반 분조를 배치해주고 농장원들의 주거공간에서 방 한 칸을 동원노력들에게 내주도록 조치해놓는다. 새벽 6시에 깨어 일찍 조반을 먹기 바쁘게 포전으로 나가면 이슬비에 바지가랑이가 젖은 줄도 모르고 열심히 강냉이가을을 시작한다. 일인당 도급제를 주기 때문에 자기 맑은 밭고랑의 강냉이 대를 정신없이 베어 가다보면 어느 순간엔가 머리가 어지럽고 하늘이 빙빙 돌아 혼자 주저앉아 쉬기도 한다. 한참 눈을 비비고 잔등에 흘러내리는 땀을 들이고 나면 목말라 물을 먹고 싶은데 끝이 보이지 않는 밭 한 가운데서 물 먹으러 개울을 찾다보면 오전 시간을 다 보내야하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 따가운 해 빛이 내려 쪼이는 가을 낮, 줄줄이 흐르는 땀을 손으로 훔치며 시계를 들여다보면 아직도 12시가 멀었다. 할 수 없이 빨리 나온 친구들과 같이 강냉이 밭 사이에 말라 버린 풀들과 강냉이 잎을 주어모아 딱딱한 강냉이를 구워 먹기도 한다. 이렇게 구워먹는 강냉이는 참 별 맛이다. 농촌지원이 아니면 그 어디서든 맛볼 수가 없다. 구운 강냉이를 먹으면서도 마음은 내내 오늘 중에 보이지 않는 저 끝까지 다 가을할 수 있을지 늘 걱정되었다. 한참 부지런히 강냉이 대를 베나가야 점심 먹을 시간이 된다. 대충 씻고 십리 길을 걸어 식당에 도착하면 긴 문짝 두세 개를 대충 맞추고 밀을 고인 밥상에 구수한 배추국과 늘 아쉬운 밥에 허기를 채운다. 늘 내 밥그릇은 낮고 남의 밥그릇만 더 커 보이는 것 같아 서운했다. 강냉이 가을이 끝나자 이삭을 뜯어내 부지런히 트랙터에 실어 던지며 장난치던 일, 탈곡장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강냉이무지

에 모여앉아 오사리를 벗기며 설 새 없이 수다 떨던 일, 어둑어둑한 밭에서 온 얼굴에 검댕이 묻혀가며 콩 청대를 해먹던 힘들고 재미있는 추수가 봄보다 훨씬 좋았다.

매해 봄 전투 때면 농촌지원에 빠져보려고 부모들과 떼를 쓴 적도 한두 번 아니었고 새벽같이 일어나기가 죽기보다 더 싫어 집 빨리 가고 싶은 농촌지원이었던 같았다. 며칠 못 견뎌 배고프다고 간식을 보내라, 내의를 보내라, 부모를 못살게 굴던 일, 하루라도 연장되면 서로 붙들고 울며불며 난리 피우던 가을동원이었다. 언젠가 벼 가을 하던 때의 일이다. 각자가 6줄씩 맡아 부지런히 경쟁하며 벼를 베기 시작하자 잠깐 새 한 두령, 두 두령 논바닥이 모습을 드러낸다. 점심시간이 돌아오자 열린 도시락 비우고 부지런히 찰벼를 훑어 도시락에 채워 집에 가져갔던 일도 있다. 비오는 날이면 쌓아놓은 벼단 속에 들어가 잠을 청하던 따뜻하고 폭신한 그 행복한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비료가 없어 전반적으로 곡식이 한창 성장할 때 크지 못하는데 며칠째 비라도 쏟아지면 벌레가 성행해 강냉이 수확량은 현저히 줄어든다. 수 십 년 동안 산성화된 땅에 종자개량도 못하고 비료 한줌 제대로 못 주하는 북한의 농촌 환경에서 올해도 북한에서 목표하는 430만톤 생산량 돌파는 언제 가능할지 걱정이 앞선다. 

정민숙님은 2004년 한국에 온 새터민으로 64호부터 연재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교류협력 사업을 이야기할 때 有無相通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남과 북이 각기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통하게 해서 협력사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정성에는 이제 남쪽의 물자와 남쪽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선 남쪽에서 지붕재를 비롯, 물자가 가고 남쪽의 기술자가 가서 건물을 마무리하고 내부에 설비들을 장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성의 식구들은 남쪽의 물자들을 몹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쪽이 화답해야 할 때입니다.

# 발 묶인 지원물자, 이제는 풀어야 합니다

손종도 남북협력사업2팀 부장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빈 터에 불과했던 땅에 단층으로 된 골조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바닥의 기초 공사와 벽체 공사만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8월 27일, 평양의 낙랑구역 승리 1동에 있는 정성의학종합센터(이하 정성)에서의 일입니다. 이 건물이 완공되려면 남쪽의 물자와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바닥 기초와 벽체 공사만 마무리된 이 건물은 남쪽의

물자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성이 자신의 힘만으로 이루어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는 남쪽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제공한 것입니다. 이제 이 설계도에 따라 필요한 물자를 남쪽에서 마련해 북쪽에 보내야 건물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해부터 정성의학종합센터 내에 동물실험실을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액약품공장이나

약약품공장에서 약품을 생산한다면 품질관리실과 이 동물실험실에서는 생산한 약품의 안전성을 검사합니다. 남쪽의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동물실험실은 생산된 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정성의학종합센터는 종합적인 제약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몇 년전부터 수준높은 품질관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실과 더불어 동물실험실 건설을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에 지난해 품질관리실을 완공했고 곧바로 동물실험실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동물실험실 건설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물자에 대해서도 선별해서 반출(북에 보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반출을 허용하는 인도 지원 물자들은 밀가루와 옥수수 등 기본적인 식량과 의약품에 국한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더욱 강화되었고, 최근 개성공단의 유성진씨가 돌아오고 북한의 특사 조문단이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하고 돌아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우리 민간단체들의 모니터링 방북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사업의 협의와 모니터링을 위한 방북은 민간단체들의 사업 진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지원 물자의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니터링 방북을 장려했었습니다.

지원 물자 및 방북의 선별적 허용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에 거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접어들어 남쪽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 사업 내용은 거의가 개발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의약품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원료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의 내용이 바뀌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물실험 건설에 필요한 기본적인 건설 물자와 장비, 설비들이 정부의 불승인으로 북쪽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개보수에 필요한 지붕재와 의료장비 등도 정부의 반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5월, 빈터에 불과했던 정성의학종합센터 동물실험실 부지 모습

가 사업 현장 방문마저 정부의 선별 허용으로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만인 8월 말이 되어서야 평양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재작년까지 거의 매달 평양을 방문하던 때와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월 빈터로 남겨져 있던 동물실험실 부지에는 이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물실험실의 벽체가 세워져 있습니다. 정성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한 셈입니다.

남과 북의 교류협력 사업을 이야기할 때 有無相通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남과 북이 각기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통하게 해서 협력사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정성에는 이제 남쪽의 물자와 남쪽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선 남쪽에서 지붕재를 비롯, 물자가 가고 남쪽의 기술자가 가서 건물을 마무리하고 내부에 설비들을 장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성의 식구들은 남쪽의 물자들을 몹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 놓았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쪽이 화답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현 입장이 바뀌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



8월말, 기초골조공사가 중단된채 남측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동물실험실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그 자체에 힘이 있는 말!

강승희 서강대 국제대학원 졸업



6개월 전 이름을 처음 보았을 때, 참 노골적인 단체명이구나 생각이 들었다. 여러 가지 포장 된 이름이 난무한 이 시대에 정말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이 참 이질적이면서도 정감 있게 다가왔다. 합리성을 추구하며, 개인주의가 미덕인 이 세대에 폭 절어 살아온 나는 이 이름이 나타내는 따뜻함이 생소했지만, 우리민족을 말하고 소개할 때 마다 이 말이 마음에 박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북한에 대해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하 우리민족)은 기회를 주었다. 평화나눔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10년 백서를 만드는 작업을 도왔고, 얇은 지식들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우리민족에 대한 사랑과 아픔이 진해졌다. 지난 6개월은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남한에도 북한에도 다양하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 시간이었다. 남북관계는 얼어버릴 때로 얼어버려 더 없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남쪽에서는 존경하는 어른들을 힘겹게 보내야 하는 아픔이 있었다. 북 내부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은 미래는 예측할 수 없을 때 가장 많은 공포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남북관계를 지켜보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이 무엇인지 공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 하며 즐겁게 일하는 사무실 식구들은 나에게 도전이 되었고 용기를 주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에서의 시간은 작은 시야로 내 주변만을 바라보던 나에게 한반도와 그 안에 사는 우리를 보게 해준 시간이었다. 지면을 빌려 연약한 저를 보듬어 주신 사무실 가족들에게 감사함과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

“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북한 가족들도 건강하세요.

”

# 태양을 얼린 열정, 34명의 볼고그라드 아리랑

우리민족의 한과 이별의 아픔이 담겨있는 아리랑, 세월이 갈수록 고려인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져 더욱 선명한 노래, 세대와 국경을 넘어 함께 부르는 아리랑은 부산대학교 해외봉사단 8일의 이야기를 담기에 충분한 노래였다.

2009년 7월 29일, 러시아 볼고그라드 데카가가리나 문화회관에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한국에서 온 부산대학교 제8기 해외봉사단(이하 봉사단)이 7박8일간의 봉사일정을 마치고 준비한 발표회에서 고려인 아이들과 함께 부른 것이다. 우리민족의 한과 이별의 아픔이 담겨있는 아리랑,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고려인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져 더욱 선명한 노래, 세대와 국경을 넘어 함께 부르는 아리랑은 봉사단 8일의 이야기를 담기에 충분한 노래였다. 아리랑을 부르는 내내 34명 봉사단원의 눈가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도 8일간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음이 분명하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부산대학교가 함께 준비하고 34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진행한 해외봉사단의 8일, 그 이야기는 봉사단원들이 대지를 녹일 듯 내리찍는 폭염 속에 흘린 땀방울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담고 싶은 마음 굴뚝같으나 제한된 지면으로 이번호에서는 정성윤, 이은정 두 봉사단원의 체험수기를 실었다.



- ① 출국전 인천공항에서 기념촬영
- ② 미술반 고려인 아이들과 함께
- ③ 태권도반 아이들의 교육모습
- ④ 해외봉사단의 풍물거리공연 모습(볼고그라드 아르빠뜨거리)

# 불타는 더위, 더 뜨거운 열정, 7박 8일간의 붉은 추억

정성운 부산대학교 제8기 해외봉사단

볼고그라드로 봉사활동을 다녀 온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다. 다시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의 바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예전과는 다른 뜨거움이 가슴 한켠에 아직도 남아있다.

## 쁘리벨, 러시아!(안녕, 러시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학생 34명의 부산대학교 러시아 봉사단이 소집되었다. 10개의 시간대를 가지고 있는 광활한 대륙이며 시베리아의 추운 겨울과 한국근대사와 얽혀있는 역사적 지식 이외에는 우리에게 러시아는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다. 수교가 이루어진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러시아에 대한 관심과 정보, 서적 또한 미비한 수준이었다. 그러던 중 이번 봉사단 사전 교육을 위해 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봄철 부장의 러시아 볼고그라드지역 고려인들의 생활 등에 대한 설명은 여기저기 궁금해도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현지 고려인들의 상황과 사정들을 상세하게 알 수 있었다. 한 달여간의 준비를 끝내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새벽,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러시아로 출발하였다.

## 말라제쯔!(잘했어요!)

우리는 한글, 음악, 태권도, 미술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데까 가가리나 문화회관에서 고려인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한국에 대하여 알리기 위하

여 최선을 다하였다. 한글교육, 서예, 윷놀이, 제기차기, 줄넘기, 태극기 만들기, 천연염색, 부채만들기, 탈만들기, 벽화작업, 모듬북, 사물놀이, 부채춤, 동요와 민요, 태권도와 명상, 예절교육 등 사전에 준비된 수업과정에 맞추어 교육하였다. 예상하지 못했던 인원수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은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었지만 무엇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비록 전문지도자는 아니었지만 각자의 재능과 재치를 바탕으로 교육봉사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으며, 7일간의 교육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문화공연은 매우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부채춤과 연극, 북춤공연과 사물놀이, 모듬북, 태권도 품새 및 격파시범은 서로간의 어울림과 열정으로 짧은 교육기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과를 내었다. 공연의 마지막은 아리랑으로 장식하였다. 3시간이 넘는 거리임에도 빠짐없이 참석해준 학생들과 49℃의 폭염에서 땀흘려가며 가르친 봉사단 모두가 하나 되어 불렀다. 공연을 마치고 서로가 눈물을 글썽이며 부둥켜안을 때 우리는 한민족이고 하나임을 느꼈다. 그때 사랑으로 많은 교류를 하고 돌아오라는 이봄철 부장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

## 쓰바찌바, 드루그!(고마워요, 친구!)

이번 해외봉사는 부산대 학생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하였다. 고려인과 러시아인으로 구성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아니었으면 무사히 끝낼 수 없었을 것이다. 표준어도 아닌 부산사투리를 쓰는

## 부산대학교 제8기 해외봉사단 7박8일 체험기

우사뽀스가 농장에서의 할아버지께서는 북한사투리 억양의 우리말을 하셨다. 봉사단 이외의 사람이 우리말을 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왜냐면 교육생들의 대부분은 나와 같은 피부색과 얼굴, 같은 식습관과 예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말을 하지 못하였고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조차 없었다.



태권도반 고려인 아이들과 기념촬영(필자 맨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우리말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텐데 번역을 하며 소통의 물꼬를 틔워준 친구들이 고맙다. 우리말을 너무 잘하는 엘레나, 멋쟁이 알렉스, 기타를 잘 치는 이고르, 항상 웃게 만드는 세르게이, 헤어질 때 서럽게 울던 안드레이, 태권소년 비카, 러시아의 모든 활동을 조율해준 보바, 천사같은 사샤, 매너가이 막심, 정이 많은 앤드류, 미소가 예쁜 아텔, 누구보다 큰 힘이 되어주신 표트르 할아버지, 러시아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 정우정 간사, 키 큰 지선이, 러시아에 적응하지 못하여 힘들어 할 때 상냥하게 웃으며 다기와 주었던 이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하니 어느새 이별의 시간이었다. 이들과 함께 웃고 땀 흘리며 함께한 추억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또한 늘 달려와 안기던 돌콩 안드레이, 예뻐슬라브, 마르크, 사샤, 블라자, 다비드, 야르쑈, 소냐, 한결, 한솔, 로마, 디마, 로샤, 엔산, 다샤, 엘르미에르 다들 지금 내 옆에 있을 것만 같은 아이들이다.

## 빠까, 볼고그라드!(안녕, 볼고그라드!)

교육봉사를 마치고 노력봉사를 하러 갔던 우사뽀스가 농장에서의 할아버지께서는 북한사투리 억양의 우리말을 하셨다. 봉사단 이외의 사람이 우리말을 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왜냐면 교육생들의 대부분은 나와 같은 피부색과 얼굴, 같은 식습관과 예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말을 하지 못하였고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조차 없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민족

정체성에 대하여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재미동포와 같은 동포가 아닌 고려인이란 이름으로, 소수민족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가슴이 아팠다. 교육봉사를 할 때 생각해 보면 고려인들과 러시아인들은 서로 섞이지 못하였다. 태권도로써 함께 수련하며 단체운동을 하였고 한국인인 우리에게 배웠지만, 고려인들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는 것 같았다. 이를 몸으로 느끼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민족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이는 한국에서 서로 경쟁하며 앞만 보며 살아왔던 나에겐 충격적이었으며 반성하게 되었다. 나아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같은 NGO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볼고그라드의 불타는 더위, 작은 창문만 뚫려있는 짐통 같던 우리의 버스, 창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던 하루, 아무리 더위도 꼭꼭 챙겨 입었던 파란색 유니폼, 짐질방 불가마 부럽지 않던 식당 안 조리대, 땀띠와 땀쯤은 익숙해져버린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던 것은 배려할 줄 알고, 고마워 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귀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모스크바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들 보다 가슴 속에 영원히 간직 될 볼고그라드 사람들과의 기억들은 생애 가장 뜨거웠던 여름날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아름다운 추억이다. 🇰🇷



# “마음으로 하는 말” 세상을 등글게 만들 수 있는 힘을 확인하다

이은정 부산대학교 제8기 해외봉사단, 예술문화영상학과 07

해외 봉사를 하고 돌아와 주위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말이 안 통해서 어떡해? 였다. 나는 질문만큼이나 같은 대답을 되풀이해야만 했다. ‘진짜 말이 필요 없단니까~’ 나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전하는 법, 해외 봉사 지원 동기에 적었던 세상을 등글게 만들 수 있는 힘을 보았다.

##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러시아로 떠나기 전 처음 러시아어를 배울 때, 불가능 하리라 생각했다. 한글을 가르치기는 커녕 인사조차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고 과연 고려인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컸다. 그렇게 러시아어를 겨우겨우 읽을 수 있을 때쯤 우리는 드디어 러시아로 향했다. 아이들과 고려인 학생들을 처음 만나던 날, 인사말을 속으로 얼마나 되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부푼 마음을 배신하듯 나는 완벽하게 절망하고 말았다. 말을 할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었다. 망연자실한 채 고려인 학생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유정 간사님이 우리반 아이를 끌어안으며 다가왔다. 아이에게 “예빠라, 착하지.” 하며 쓰다듬으며 웃으며 우리에게 한 말을 잊을 수 없다. “말이 안 통해도 아이들은 다 안다. 이렇게 웃고 예빠하고 사랑을 주면 통한다.” 그때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보며 아차 싶었다. 우리의 표정은 누가 보아도 곤란하고 힘들어 보였고 그런 표정과 기분은 지구인이자라면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만국공통어였던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보니 우리의 이런 모습은 비단 아이들에게 뿐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우리 주위를 세심하게 서성이고 있던 고려인 친구들에게 조차, 견디기 힘든 더위와 낮은 곳에 대한 이질감 때문에 서로 간에 ‘대함’이라는 것을 잠시 망각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이나 느낌까지 통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 정말 어리석은 착각이었다. 낮은 곳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지쳐가는 우리들을 보며 그들은 또 얼마나 조바심이 났으며 안타까워했을까.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언어의 장벽을 내세워 잠시나마 마음의 벽까지 쳤던 우리들이 또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제야 그들이 한없이 고맙게 느껴지고 그들에게 무한한 애정이 샘솟았다. 이렇게 값진 사실을 깨닫고 나니 모든 것이 새롭고 신났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고려인 학생들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까지 마음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 마음과 마음의 대화

모든 교육 일정을 끝내고 드디어 발표회가 있던 날, 우리는 다시 한 번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야 했다. 발표회 날은 어찌면 데카 가가리나 문화회관 설립 이래 가장 정신없었던 날이었는지 모른다. 우리 팀 발표 차례는 코앞인데 아이들은 정말 설 새 없이 뛰어다니고 잡아 두면 없어져버리는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때야말로 고려인 학생들과 우리들이 일심하여 007작전을 방불케 한 명장

부산대학교 제8기 해외봉사단 7박8일 체험기

● ● ●  
기적은 기적을 낳는다고 합니다. 날카로워지는 세상을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세상을 등글게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해외 봉사라는 짧은 변화를 통해 콜카타의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볼고그라드에서 고려인과 제 안에서 만들어가는 기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고려인 친구와 기념촬영(필자 오른쪽)

면일 것이다. 앞문과 뒷문 그리고 문화회관 내부 까지 007요원 마냥 배치되어 있다가 메뚜기처럼 튀어나가버리는 아이들을 다시 안으로 집어넣곤 했다. 섭씨 50도의 더위와 발표회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도망가는 아이들 때문에 만국공통어로 슬슬 우리의 기분이 드러날 조짐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큰 실수를 했던 첫 수업 날을 떠올리고는 얼른 마음을 다 잡았다. ‘이럴수록 웃어야 한다. 아이들을 보듬어야 한다.’ 이렇게 되니 조금했던 마음도 조금 가라앉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 우리 러시아 팀원들에게도 웃는 얼굴로 힘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렇게 정신 없던 발표회가 드디어 ‘아리랑’으로 마무리되었다. 마음만은 통했던 우리 아이들과 한 목소리로 노래 불렀다. 그러자 긴장이 풀리고 다리도 풀리면서 내 마음도 함께 풀려버렸다. 옆에 있던 타냐를 꼭 끌어안고 못다한 말들을 풀어헤치기 시작했다. 더 잘해 주지 못한 미안함과 이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끝나버린 아쉬움, 언제 또 다시 볼까 하는 이별의 허무함까지 8살짜리 타냐에게, 아이들을 수 없을 거란 걱정은 하지 않았다. 말보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까찌리나를 보았다. 난 그녀에게 다가가 “난 아무것도 줄게 없다.”고 울먹거렸다. 그녀는 이미 며칠 전에 나에게 마마에프(어머니)동상 사진이 들어있는 열쇠고리를 선물해 주었다. 난 아무것도 줄 것이 없지만 내 마음만은 온전히 다 주었다며 한국어로 말했다. 그리고선 그녀의 이름표 뒤에 나의 이메일 주소를 조심스레 적었다. 내가 할 수 있

는 것은 그게 다였다. 하지만 그녀는 다 알아들었다는 듯이 촉촉이 젖은 두 눈으로 대답했다. 이때 비로소, 마음으로 전한다는 것의 의미를 온전히 느꼈다. 진심은 말로 다하지 못할 때, 굳이 말이 필요 없을 때에 더 절실하게 전해졌던 것이다.

## ‘우리’ 라는 소중한 선물

우리가 볼고그라드에서 처음 맞던 주말, 불가강변으로 놀러갔을 때 표도르 할아버지께서 풍만하신 배를 두드리며 ‘이것이 재산’ 이라고 호탕하게 말씀하시던 것을 보고 다 같이 크게 웃었던 것이 생각난다. 이렇게 보면 정말 그들과 우리는 이미 서로의 정서를 공유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던 ‘우리’ 였다. 그리고 우샤뽀스가 농장으로 일손을 거둘러 갔을때 고려인 할아버지께서 맛있는 밤을 한껏 해주시며 자신의 성과 같은 사람이 있느냐 찾으시던 모습이 떠올려본다. 그때 우리는 정말 그들의 자식이자 손자였고, 끈끈한 ‘우리’ 였다. 분명 지금 우리 주변은 등글지 만은 않은 세상이다. 여기 저기 각이 저있어 언제 어느 때 날카로운 모서리에 닿을지 몰라 서로에게 불안한 요즘 시대이다. 하지만 볼고그라드의 훈풍은 이런 시대를 초월하여 그 곳 기온만큼이나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득 메웠다. 2009년의 뜨거운 여름, 볼고그라드에서 선물 받은 이 마음의 훈풍은 우리들의 10년 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 믿는다. 🌿

#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따라 보세요

## 6월

30일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 유치원, 남양로동지구 유치원, 왕재산리 유치원, 농장 유치원, 종축장 유치원의 2,300명에게 850만원 상당의 급식 및 생필품 지원 (6월분)

## 7월

2일

남포산원 건축자재 지붕단열재 지원

15일

- 1차 청소년 대상 '북한바로알기 NGO교실' 진행 - 성남 늘푸른 고등학교 전교생



- 부산대학교 제8기 해외봉사단 34명, 러시아 볼고그라드 출국

13일



3차 청소년 대상 '북한바로알기 NGO교실' 진행 - 안양 중흥고등학교

## 8월

8일

북한 영유아 급식 분유 5,400kg 지원

25일

스콜라스 '쏟아만드는세상' 참석, 홍보부스 설치

23일

7월 상임위원회 회의(렉싱턴호텔)

16일



2차 청소년 대상 '북한바로알기 NGO교실' 진행 - 고양 성사고등학교 전교생

15일



제8회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 축제, 한국대표단 7명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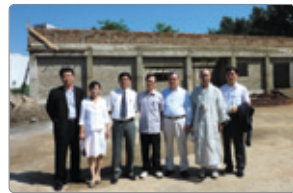
20일

8월 상임위원회 회의

24일

평안북도 룡천육아원, 동림중등학교, 동림양생원에 아동급식용 공기름 1,000kg(2백만원상당) 지원 (단동-신의주)

26일



정성의학종합센터 및 적십자병원 대표단 방북(7명)

31일



제1차 대북 긴급 식량지원 옥수수 4,200톤 지원(중국 대련-북한 남포 해로)

## 9월

1일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 유치원, 남양로동지구 유치원, 왕재산리 유치원, 농장 유치원, 종축장 유치원의 2,300명에게 850만원 상당의 급식 및 생필품 지원 (7월분)

2일



러시아 사할린 김치축제 대표단 참가

11일



- 제3차 남북 공동 말라리아 방역사업 물자 지원(개성 육로)



- 평화나눔센터 '시민사회 통일론 정립'을 위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4일



제 40차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주제 :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현황과 향후전망  
장소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회의실

12일

4차 청소년 대상 '북한바로알기 NGO교실' 진행 - 대전둔광성결교회 어린이반

18일



- 남북 공동 말라리아 방역사업, 개풍양묘장 현장 확인 및 사업 협의를 위한 개성 방문(3명)

21일

5차 청소년 대상 '북한바로알기 NGO교실' 진행 - 수원 매탄고등학교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 6월, 7월, 8월 성금 및 회비를 기탁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손길에 대한 복덕동포의 고마움을 전합니다.

Table with 24 columns listing donor names and amounts. Includes a highlighted '6월' section and a '발기인' section at the end.







## 즐거운 선택, 희망을 추가합니다!

커피한잔의 따뜻함이  
좋아지는 계절,  
좋아하는 커피를 선택할 때 즐거움  
조금 더 계속될 수 없을까 고민합니다.  
나눔을 선택하세요!  
즐거움에 희망이 더해집니다.

